

지역인사칼럼

도서관이 경쟁력이다

'백도날드 가게보다 공공 도서관이 많고, 극장 방문 회수보다 2배가 넘게 공공 도서관을 방문하며,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의 7배를 자녀들을 위해 학교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데 보내는 나라,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위의 내용은 지난 4월 미국 도서관 협회가 도서관 주간



KBS 배병오 기자

을 맞아 내놓은 '도서관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들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미국 도서관에서 매일 다루는 자료는 FedEx의 하루 물류량 보다 많고 한해 스포츠 관람 인원보다 5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원천은 군사력이라는 무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식력이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의 하나가 도서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의 동네 도서관에서 가장 전문적인 학술도서를 신청해도 1주일 정도면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스템이 잘 구축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자 위주의 도서관 체계라는 시스템이 도서관을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한지 벌써 10년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도서관 출입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공공 도서관은 고교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생활공간과는 멀리 떨어진 외계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부터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학 도서관을 네 집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대학의 배려 덕분입니다. 도서관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도 버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멀티 미디어를 통한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도 손색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 100가지라는 한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터넷을 공짜로 하고 하루종일 DVD나 VTR을 공짜로 보는 일이 거짓이 아님을 느낍니다. 저는 대학의 이런 노력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다가서기 위한 배려에 그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대학 도서관의 개방은 공공 도서관을 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첫 걸음이자 도서관 네트워크와 구축의 중요한 시도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정보 사회를 넘어 이른바 지식사회라는 요즘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임을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이면 가족의 손을 잡고 인근 대학 도서관을 찾아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는 꿈이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중앙도서관 50대 추천도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서비스 확대,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독서 능력 향상과 면회를 장려하기 위한 도서관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2004년 동서대학교 중앙도서관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독후감 공모 및 당선작 시상 행사를 가집니다.

2004년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독후감 공모 요강

- 독후감 대상작 : 선정도서 중 1편
- 제출처 : 동서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 마감일 : 2004년 10월 16일
- 시상 : 우수작 1편,佳作 3편, 장려 5편
- 응모자격 : 동서대학교 교직원, 학생, 중앙도서관 등록 지역주민
- 문의 : 학술정보관리팀 박광종(pkj@dongseo.ac.kr)

2004년 동서대학교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구분	서명	저자	출판사	주제
1	나의 세계관 뒤집기	성인경	홍성시	인문
2	문학과 그림	소용훈	호형출판	인문
3	생각	사이먼 블랙번	이소출판사	인문
4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김영사	인문
5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고미숙	그린비	인문
6	천로역정	존번연	크리스천다이제스트	인문
7	철학의 원리	르네 데카르트	아카넷	인문
8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윤민희	에경	예술
9	인터넷이시	기본시페	시공사	예술
10	고양이 대학살	로버트 단틴	문학과 지성사	역사
11	문화의 속명	세리 오트너	살천문학사	역사
12	미시사의 즐거움	위르겐 슐름봄	돌베개	역사
13	음모론	데이비드 서우스웰	이마고	역사
14	조선의 뒷 골목 풍경	강명관	푸른역사	역사
15	행복의 발견	스튜어트 매크레디	휴머니스트	역사
16	황제의 유산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북스토리	역사
17	길	조청인	밝은세상	소설
18	넙치	퀸터 그라스	민음사	소설
19	느림	밀란 쿤데라	민음사	소설
20	아홉살 인생	위기철	청년사	소설
21	칼의 노래	김훈	생각의 나무	소설
22	클레라 시대의 사랑	가브리엘 마르케스	민음사	소설
23	카친	요시모토 바부나	민음사	소설
24	화장	김훈 외	문학사상사	소설
25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무하마드 유누스	세상사람들의책	비소설
26	닥터 노먼 베슨	테드 알렌	살천문학사	비소설
27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항의 법칙	킹던컨	뜨인돌	비소설
28	마크 트웨인의 19세기 세계일주	마크 트웨인	시공사	비소설
29	선물	John Spencer	중앙M&A	비소설
30	어느 선장의 가르침	딕 라일즈	국일미디어	비소설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구분	서명	저자	출판사	주제
31	오래된 미래	할레나노르베리호지	녹색평론사	비소설
32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칼슨	창작시대	비소설
33	책 읽는 소리	정민	마음산책	비소설
34	CARS 폴크스바겐스토리	페르디난트 피에히	생각의 나무	비소설
35	고령화 쇼크	박동석	굿인포메이션	사회
36	일본인과 미국인의 의식구조	와가즈마 히로시	큰산	사회
37	침묵의 봄	레이철 카슨	탐구당	사회
38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	박상진	김영사	과학
39	우리 몸 기생생물에 대한 관찰 노트	로버트 버크만	휘슬러	과학
40	파인만의 여섯가지 물리 이야기	리처드 파인만	승산	과학
41	하늘의 신화와 별자리의 전설	장베르베르데	시공디스커버리	과학
42	80/20의 법칙	리처드 코치	21세기 북스	경제.경영
43	비즈니스 링크	데이브 마컴	김영사	경제.경영
44	성공하는 CEO는 30대에 결정된다	나마이 도시유키	기아넷	경제.경영
45	아름다운 경영	정문술	키와채	경제.경영
46	아이디어 바이러스	세스 고딘	21세기 북스	경제.경영
47	이전회 개혁 10년	김성홍	김영사	경제.경영
48	창천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21세기 북스	경제.경영
49	한가지로 승부하라	브라이언 트레이시	21세기 북스	경제.경영
50	협성의 법칙	허브 코헨	청년정신	경제.경영

도서관 탐방

Ipswich Library
The University of Queensland(Australia)• UQ 소개 (홈페이지 : <http://www.uq.edu.au>)

UQ의 full name은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이고, 이름대로 Queensland의 주도 Brisbane에 위치하고 있다.



Queensland 대학교는 1909년 설립된 종합대학으로서 호주에서 Level 1에 속하는 최고의 명문대로 뛰어난 시설과 연구, 우수한 교수법으로 유명하다. Queensland주에 있는 8개 대학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며, Queensland 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로 St. Lucia 캠퍼스와 Ipswich, Gatton과 함께 3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 캠퍼스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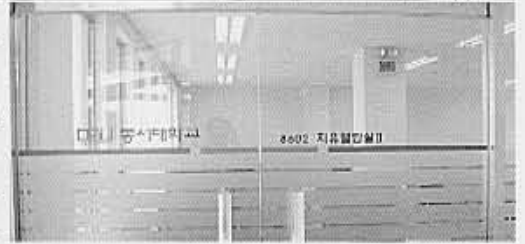
1백8십만 여권의 장서와 다수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소장한 Queensland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 도서관 네트워크는 중앙 도서관을 비롯하여 13개의 소형 도서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4개 도서관에 전문사서 81명, 일반직원 190명(99년 수치), 단행본 1백 80여만권, 정기간행물 2만8백여종(63만여권)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 UQ Ipswich Library 소개

UQ Ipswich 도서관은 Queensland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13개의 소규모 도서관 중의 하나로 Ipswich 캠퍼스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예술, 비즈니스, 경제, 법률, 기술, 물리학, 건

인문사회관 자유열람실 이전 오픈

2004년 9월에 인문사회관 자유열람실을 1층에서 6층으로 이전하여 개관하였다. 열람실은 제1열람실, 제2열람실로 나누어 378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히 제2열람실의 60석은 최신 열람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자유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게 되었다.



개인열람실(Carel실) 스탠드 교체

중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Carel실의 스탠드를 교체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축, 건강과학, 사회행동과학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Ipswich 도서관은 2003년에 오픈을 하였으며, 대학의 중요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복합 기능의 건물이다.

• 도서관구성및특징

Ipswich 도서관은 기존 여느 도서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도서관들이 첨단 장비의 시설과 안락한 인터페이스에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을 부여,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만족시키는 반면, UQ Ipswich 도서관은 이 모든것에 자연친화적인 요소까지 가미하여 이용자의 심적인 안정까지 고려한 면면을 엿볼 수 있다. 현대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또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열람관리팀 안성두(stork@dongseo.ac.kr)



작가와의 만남

제 13 회 작가와의 만남



제13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서는 부산의 은둔 시인 허만하님을 초청하여 "시와 교양"이라는 주제로 2004년 04월7일(수) 오후 3시 중앙도서관 E-Library(9층)에서 기졌다. 허만하 시인은 30년 만에 펴낸 두번째 시집 "비는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 (1999)로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강연에서 시인지신의 시 철학과 삶의 역정을 진솔하게 밝혔다.

대표작

- 「청마풍경」/솔
- 「낙타는 십리밖 물 냄새를 맡는다」/솔
- 「비는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솔

제 14 회 작가와의 만남



제14회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추연근 화백을 초청하여 "생활과 현대미술"이란 주제로 2004년 05월18일(화) 오후 3시 중앙도서관 영상문화실(8층)에서 만남을 가졌다.

흑태양의 작가로 유명한 추화백의 미술세계와 흑태양의 의미를 강연했다. 흑태양은 말 그대로 부정과 부패, 불신이 넘치는 사회에 존재하는 까만 색의 태양이었다. 암울한 사회에서는 태양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태양이 숲덩이처럼 어둡더라도 내일은 밝아졌으면 하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생활속의 미술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생활속에서 미술을 바라볼 것인가를 작품을 통해 강연하였다. 참고로 추연근(秋淵根·83)화백은 부산의 1세대 서양화가이자 부산 서양화단의 개척자이며 필순을 남긴 노화가이며, 'Who's who in the world 2002'라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현존 인물에 관한 인명사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제 15 회 작가와의 만남



제15회작가와의 만남은 '밖의 노래'로 유명한 소설가 김훈님을 초청하여 "말하기와 글쓰기의 어려움"이란 주제로 2004년 09월14일(화) 오후 3시 중앙도서관 E-Library(9층)에서 기졌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우리글 한글의 글쓰기와 말하기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함과 후회들이 한글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함을 역설했으며, 강연말미 질문과 답변시간에서 왜 글을 쓰는가 불음에 "밤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쓴다"라고 솔직단백하게 대답했으며, 역사의식에 대한 질문에서도 죄와 벌보다는 인간성을 더 중요시 한다고 답변하였다.



제 16 회 작가와의 만남 안내



제16회 작가와의 만남은 "한국 여성이 빛어낼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언어 미학사"로 알려진 소설가 오정희(吳貞姬 1947)님을 모시고, <나의 삶과 문화>이란 주제로 2004년 11월 17일(수) 오후 3시 중앙도서관 E-Library (9층)에서 기진다.

프로필

- 1947년 서울 출생
- 1968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졸업
- 1968년 <완구점 여인>으로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
- 1979년 <저녁의 게임>으로 이상문학상 수상
- 1982년 <동경>으로 제15회 동인문학상 수상
- 1996년 <불꽃놀이>로 제9회 동서문학상 수상
- 대표작 및 우물, 유년의 딸, 바람의 낮

작가이야기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라벌에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오정희는 30년이 넘는 창작 기간 동안 결코 많지 않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 문화사에 여성성의 새 지도를 확장해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불의 강><유년의 딸><바람의 낮><불꽃놀이><새> 등 일련의 창작집에서 그녀는, 오랜 가부장제의 그늘 아래서 거부당하고 억눌렸던 여성 의식과 여성적 생명의 에너지를 심세하게 되살려냈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오정희는 흰털적인 세상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거부당하고 저주받은 영혼들을 위무하면서 진정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오정희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작가이다. 1968년 <완구점 여인>으로 등단한 이래 줄곧 유려한 메타포, 서정적인 문체, 그리고 구상적 완결성을 바탕으로 매우 독특하게 여성의식을 소설화해 왔다. 서정적인 문체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창조적으로 회상해 내고, 또 그것을 통해 존재의 심연을 탐색해온 결과가 오정희의 소설이다.(우찬제/문학평론가, 서강대 교수)

이 한권의 책

상해의 조선인 영화 황제

스즈키 쓰네키츠 저 / 이상익 | 실천문학사

외국어학부
김인하 교수

1930년대에 중국영화계를 주름잡으며 '영화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은 한국인 김엽(金燾: 1910-1983)이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남긴 발자취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영화 황제 김엽의 삶과 예술을 김쪽같은 망각으로부터 건져낸 사람은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일본인 스즈키 쓰네키츠(鈴木常勝)였다. 나는 김엽의 생애를 추적

한 이 약간 특이한 전기(傳記)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를 감격과 흥분 속에서 읽고 또 읽었다. 현대 중국의 문학사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중국민족의 영혼이라고 평가받았던 루쉰(魯迅)을 찾아야 하듯이, 현대중국의 영화사를 실감나게 이해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영화의 황제' 한국인 김엽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 김필순은 도산 안창호와 결의형제를 맺고 신민회를 결성했으며, 그가 두 살 때인 1912년에는 일제에 쫓겨 가족을 모두 데리고 중국 땅으로 건너간 뒤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이상찬 건설에 헌신했던 의사이자. 그가 태어나던 해에 나라가 망했고,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중국 땅에서 사망했다. 천진(天津)의 남개중학(南開中學) 시절 님 웨일즈의 《아리랑》으로 유명해진 김산(金山)과 현대중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조우를 만났으며, 노신(魯迅)의 작품을 읽고 감명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김진(金進)으로 바꾸려고 했다.

1927년 혼자 당시의 국제도시 상해(上海)로 건너가 갔을 고생을 하다가 '시인 감독 손유(孫瑜)를 만나 1930년대 중국영화의 간판스타가 되어 왕인미, 완령옥, 유경, 전방 등의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 스크린을 수놓았다. 그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문학가 전한(田漢), 그의 친구이자 중국 국가(國歌)를 작곡한 음악가 썬이, 1947년 진이(秦怡)와 결혼할 때 주례를 섰던 곽말야(郭沫若), 이처럼 그가 교류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현대중국의 예술사, 혁명사, 문화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겨놓은 거목들이었다. 그는 영화예술에 기여한 탁월한 공로에 힘입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 중국 전역에서 단 3명뿐이었던 1급 연기자(행정부의 장관보다 높은 지위)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1962년 위례양 수술을 받다가 일어난 1만명에 1명 꼴로 발생하는 위 신경 절단 사고로 인해 영화계를 은퇴했다.

김엽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조선족) 사이에선 일찍부터 자랑스러운 조선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에게겐 수십 년 동안 까마득히 잊혀져 있었던 한민족의 영웅인 셈이다. 일제의 침탈이 없었다면 그가 중국의 북방 천진(天津) 땅에서 표준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표준 중국어를 구사할 줄 몰랐다면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던 1930년대의 중국 상해(上海)에서 영화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아버지를 잃은 원한이 없었다면 스크린에 분노와 반항의 열정을 그토록 자연스럽게 풀어놓아 일제의 침탈에 격노한 중국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알아봅시다

이번 호에서는 연구와 학업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우리대학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본다.

IEL

IEEE/IEE는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computer science, IT 등 기타 기술분야의 최신정보 제공, 저널 218종

SourceOECD통계

SourceOECD통계는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1998년 이후 OECD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Taylor & Francis

Arts&Humanities, Behavioral Sciences, Biomedical Sciences, Biosciences, Business & Management, Economics, Education, Geography, Planning & Environment, Social Sciences 등의 715종 수록

Science Direct

Elsevier Science(Pergamon, North-Holland)의 1,571종 Journal의 Full-Text 및 Table of Contents, Abstracts 등을 Internet을 통하여 각 기관의 사용자가 자신의 Desktop PC로 검색, 다운로드 및 프린트할 수 있는 Online Journal 구독 시스템

EBSCOHost(ASE)

엠스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전자저널 5,900여종, 82,225여권의 저널, 1,199,894건의 Articles이 수록된 기사, 목차, 초록, 전문 등을 제공

토익·토플 모의테스트 콘텐츠

CBTKorea는 ETS의 실제 TOEFL & TOEIC 문제의 수준과 최신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온라인 모의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통계에 근거한 결과분석 및 개별학습진단과 상세한 문제해설도 함께 제공

KISS(국내학회지)

한국학술정보(주)의 원문정보시스템은 전국 40여개 대학 학위논문과 16개 신학대학교학위논문 그리고 1196개 학회의 학술자료에 대한 원문 전문(全文)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 학술정보관리팀 박광종(pkj@dongseo.ac.kr)

영상문화실 영화 상영 안내

2004년 2학기 영화상영계획

상영날짜	상영시간	상영내용
04. 9.10(금)	오후3:00-5:00	내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전지현, 정혁)
04.10.24(금)	오후3:00-5:00	아는 여자(이나영, 정재영)
04.10. 8(금)	오후3:00-5:00	비림의 파티(양동근)
04.10.22(금)	오후3:00-5:40	트로이/브래드 피트, 에릭 바나, 올랜도 블룸
04.11.12(금)	오후3:00-5:10	반헬싱/슈 잭맨, 케이트 베킨세일
04.11.26(금)	오후3:00-5:00	투모로우/데니스 퀘이드, 제이크 질렌홀
04.12.10(금)	오후3:00-5:00	킹이디/클리브 오웬, 스티븐 딜레인, 키이라 나이틀리,

문의 : 매체제작실 담당 이세정 (clickne@hanmail.net)